

유아기 가정환경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 순 영¹⁾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 예 성²⁾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본 연구는 가정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이 유아기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 156명을 대상으로 그 보호자들에게 아동건강설문(CHQ-PF50)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구조적 특성, 가족관계적 특성이 아동의 전반적 건강, 행동건강, 정신건강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관계 변인은 전반적 건강과 행동건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의 동거여부는 행동건강 측면에, 양친부모 여부는 정신건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이론적 함의 및 유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아, 건강관련 삶의 질, 가정환경 특성, 아동건강설문(CHQ-PF50)

* 본 연구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8-005-J01302)

1) 제 1저자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전임강사 (E-mail : yskim98@knsu.ac.kr)

I. 서론

아동의 삶의 질은 그들의 건강상태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기 및 아동기의 발달정도와 건강상태는 이후의 발달단계와도 지속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정옥분, 2002). Cameron과 Demerath(2002)는 개인들의 성장편차가 주로 인간발달의 초기단계인 아동기에 형성되며, 아동기 열악한 환경은 차후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그 악영향이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유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발달을 겪는 시기로, 이러한 생애 초기 영양관리나 건강관리가 미흡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질병이 유발되는 등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것이다(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이러한 아동기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성취도를 통해 삶의 질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비해, 아동기에는 그 자신의 역량보다는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며 특히 이른 시기의 아동일수록 환경의 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박순영, 이종인, 김희경, 2007). 특히 사회적 관계 범위가 협소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유아기에는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최초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개인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개인의 성격, 지능, 창의성, 도덕성

및 사회성 등 모든 발달의 기초가 가정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숙경, 2001). 가족환경은 생애 초기부터 사회화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일차적 환경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부적응을 경감시키고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이자 미래의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학습의 장이 된다. 나아가 가정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정도와 위생상태 등도 아동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거론된다(김애경, 2001).

아동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SES), 물리적 특성인 가족구조, 그리고 상호작용적 특성인 가족관계를 들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등으로 규정되며(Bradley & Corwyn, 2002),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후기아동기에 비해 초기아동과 영유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Brooks-Gunn & Duncan, 199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는데, 투자적 관점에서는 가정의 물질적 재화, 서비스, 경험에 대한 구매력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며, 사회화 관점에서는 열악한 경제적 상태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Gershoff, Aber, Raver &

Lenon, 2007;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아동가구의 빈곤은 아동에게 인생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김선숙, 2008; McLoyd, 1989). 이와 함께 부모의 학력 또한 가족의 장기적인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에 포함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소득 수준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아니라, 식생활 문화 및 아동양육방식 등 경제외적인 가족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아동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순영 외, 2007; 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두 번째 환경요인인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가정내 양친부모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의 수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상태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지지기반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가족 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신체 및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양친부모가 있지 않은 가정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아동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족생활의 안정성이 낮아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주현, 2007;

Furstenberg & Hughes, 1995). 한인영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양친부모 여부 외에도 가구원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특성과 수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정 내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부모는 유아기 아동에게 보호와 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인적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한 가정 내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 부모의 양육활동을 원조하거나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유아기는 조부모의 애정적 보살핌과 풍부한 생활지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로 일컬어진다(이영숙, 박화윤, 2000; Barranti, 1985). 이와 아울러 형제자매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형제자매는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돕고 정서적 지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특히 손윗 형제가 있는 경우 동생을 보살피고 일면 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지닐 수 있다(김윤희, 강민주, 2010; Dunn, 1983). 반면,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심으로 인해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한정된 가정 내 자원이 분산됨으로써 물질적 정서적 지원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다룬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이은영, 윤미선, 2005; 박순영 외, 2007).

세 번째 환경요인으로서 가족의 관계성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근래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oleman(1988)은 부모의 인적자본이나 물질 자본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양친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는 주요한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써 불리한 물리적 환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부재나 상실보다도 부모 및 가족과의 정서적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Sameroff, 1994).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결속력이 높은 가정에서는 상황적, 발달과정상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쉽게 대처할 수 있고, 가족기능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이 긍정적인 형태를 띠므로써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김애경, 2001; 한인영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생애의 출발점인 유아기에 주목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은 가정환경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신체, 정서, 행동, 사회 등 포괄적 영역에서의 복지안녕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가정환경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환경의 특성에 따른 아동

의 건강상태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건강설문(CHQ: Children Health Questionnaire - PF50) 양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아동들은 2002년 9월에서 2003년 9월 출생한 만 5세 이상 만 6세 미만이며, 특별히 심각한 질병이 없는 일반 아동 156명으로, 기초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서울시내 소재 S대학에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진행한 한국 영아발달지표 정립을 위한 심리발달 연구에 참가하고 있던 아동회원들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표집하였다. 나아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만 연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가 있는 가정을 조사에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표집된 연구참여 아동은 총 156명이었는데 이 중 67

명이 보육료를 100%에서 40%까지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성

별을 살펴보면 남아(47.4%)보다 여아(52.6%)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44.3만원이며 가구규모는 4.3명이었다. 월평균소득과 가구규모로 산출한

표 1.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범주	빈도	%
아동성별	남	74	47.4
	녀	82	52.6
양친부모가정 여부	양친부모 가정	145	92.9
	비양친부모 가정	11	7.1
부교육수준	4년제대학 교육 이상	79	50.6
	4년제대학 교육 미만	72	46.2
모교육수준	4년제대학 교육 이상	73	46.8
	4년제대학 교육 미만	83	53.2
부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	141	90.4
	비경제활동	7	4.5
	무응답/비해당	8	5.1
모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	73	46.8
	비경제활동	81	51.9
	무응답	2	1.3
가구빈곤여부	빈곤가구	27	17.3
	비빈곤가구	126	80.8
	무응답	3	1.9
조부모동거 여부	동거 가정	30	19.1
	비동거 가정	125	80.3
	무응답	1	0.6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부연령	151 (비해당/무응답: 5)	38.5	3.82
모연령	156	35.5	3.73
가구월소득	153 (무응답: 3)	344.3만	237.76만
형제자매 수	156	0.9	0.54

육구소득비가 1에 못 미치는 빈곤가구는 전체의 약 17.3%에 해당하였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30대였으며 아버지의 약 절반 정도(50.6%)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부의 경우 90.4%, 모의 경우 46.8%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종속변수: 아동의 건강(CHQ-PF50)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HealthActCHQ, Inc.(1994)에 의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임상과 학교에서만 아니라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인 아동건강설문(CHQ: Children Health Questionnaire - PF50)의 공식 한국어 번역판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HQ-PF50은 다양한 환경 내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신체적이고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HQ-PF50(이하 CHQ)은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는 도구로서,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부모가 답변하도록 되어있다. 본 도구는 모두 15개 영역 50개 항목으로 아동의 일반적 기능과 복지안녕 수준을 신체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체와 사회심리적 건강 영역에 대한 종합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General Health), 행동(Behavior),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아울러, 아동의 발달과 적응상태를 다루는 연구들이 심리적응과 행동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Achenbach, 1991).

전반적 건강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유행하는 병이 있으면 꼭 걸린다’, ‘우리 아이가 매우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역문항을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04로 나타났다.

행동상 건강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4주 동안 자녀가 ‘다투기’, ‘주의력 부족’, ‘거짓말’, ‘화내기’ 등의 행동을 어느 정도 나타냈는지 4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상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679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4주간 자녀가 ‘울고 싶음’, ‘외로움’, ‘신경질’, ‘흥분’ 등의 감정을 어느 정도 나타냈는지 4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651로 나타났다.

1) License # CHQPF502008W5549

독립변수: 가정환경 변수

가족빈곤 여부. 가정의 경제수준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나이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가족빈곤 여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시점에서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수별 월 최저생계비 보다 낮아서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경우를 빈곤가구(1)로, 그 이상을 비빈곤 가구(0)로 정의하였다.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장기적인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아동 양육방식 등 경제외적인 가족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1)와 그 외의 경우(0)로 이분화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나누어서 보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 성장환경의 각기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가족구조. 가족구조는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양친부모가정 여부는 아동 부모의 혼인상태와 아동의 동거 가족원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화하여 양친부모 가정은 1, 그 외의 가정은 0으로 측정하였다.

조부모 동거여부. 가정에서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은 1, 그렇지 않은 가정은 0으로 측정하였다.

형제자매 수. 조사 대상 아동의 형제자매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족관계. CHQ-PF50척도의 가족응집력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긴장과 갈등 정도, 불화와 논쟁 정도에 대해 3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74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성별에 따라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표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은 모두 만 5세 유아이므로 연령은 통제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1.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건강상태의 차이**

집단 비교를 통해 가정빈곤 여부, 가족구조,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환경 특성에 따라 아동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정의 빈곤 여부, 양친부모 여부, 조부모동

표 2.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 차이

변수	전반적 건강상태			행동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n	평균 (표준편차)	t값	n	평균 (표준편차)	t값	n	평균 (표준편차)	t값
빈곤 여부	빈곤	24 15.90 (2.63)	-5.79	27 18.90 (2.80)	-3.22*	27 16.58 (2.00)	-1.932*		
	비빈곤	125 16.23 (2.56)		125 19.09 (2.87)		126 17.51 (2.02)			
양친 부모	양친	141 16.22 (2.49)	1.013	144 16.16 (2.75)	1.409	145 16.76 (1.89)	.921		
	비양친	11 15.41 (3.26)		11 17.38 (4.12)		11 16.09 (3.67)			
조부모 동거	동거	29 16.75 (1.81)	1.820	30 20.31 (2.36)	2.788**	30 17.27 (1.87)	1.707		
	비동거	122 16.00 (2.67)		124 18.70 (2.92)		125 16.56 (2.07)			

* p<.05, ** p<.001, *** p<.000

거 여부와 아동의 건강상태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우선 가정빈곤 여부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 차이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빈곤가구에 비해 비빈곤가구의 건강상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정신적 건강상태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친부모여부에 따라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집단비교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조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 비교 결과, 행동상 건강상태에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표 3. 가족관계와 아동건강상태의 상관관계

	형제자매 수		가족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N	Pearson 상관계수
전반적 건강상태	152	.081	149	.256**
행동상 건강상태	155	.084	152	.387**
정신적 건강상태	156	.166*	153	.191*

* p<.05, ** p<.001, *** p<.000

표 4. 가정환경적 특성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Sig.	Goodness of Fit		
					Adj. R ²	F	Sig.
전반적 건강상태	상수	12.116		.000	.163	3.179	.003
	성별*	-.879	-.172	.037			
	빈곤여부	-.325	-.042	.626			
	부학력	-.933	-.182	.077			
	모학력	.260	.051	.626			
	양친부모여부	2.231	.145	.113			
	조부모 동거여부	.766	.115	.162			
	형제자매 수	-.038	-.008	.931			
	가족관계*	.011	.224	.012			
행동건강	상수	11.436		.000	.229	4.982	.000
	성별	-.359	-.064	.408			
	빈곤여부	.435	.055	.510			
	부학력	.802	.142	.148			
	모학력	-.372	-.069	.486			
	양친부모여부	1.689	.099	.250			
	조부모 동거여부**	1.696	.232	.003			
	형제자매 수	.509	.092	.261			
	가족관계***	.020	.353	.000			
정신건강	상수	12.173		.000	.136	2.649	.010
	성별	.036	.009	.912			
	빈곤여부	.816	.142	.106			
	부학력	.069	.017	.870			
	모학력	-.502	-.124	.270			
	양친부모여부*	2.827	.230	.012			
	조부모 동거여부	.554	.105	.220			
	형제자매 수	.260	.065	.451			
	가족관계	.005	.133	.130			

* p<.05, ** p<.001, *** p<.000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형제자매 수 및 가족응집력과 아동의 건강상태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형제자매 수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력은 세 가지 건강상태 모두와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뒤 가정환경 요소들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우, 가정환경적 특성 중 가족관계 변인과 통제변인인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전반적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빈곤여부, 부모의 학력, 양친부모 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형제자매의 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건강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동거여부와 가족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가 함께 거주할 경우 아동의 행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화목할수록 외현적인 문제행동의 발현이 적어진다는 연구결과

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는 전반적 건강상태와 행동 건강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는 양친부모 여부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로 나타났다. 양친부모의 가정일수록 아동의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정의 빈곤여부, 부모의 학력, 조부모 동거여부, 형제자매의 수, 가족관계 변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정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이 유아기 아동의 건강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만 5세에서 6세 사이의 156명 아동을 대상으로 그 보호자들에게 아동건강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건강, 행동건강,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정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이를 통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관계 변수는 아동의 전반적 건강과 행동건강에 측면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가족관계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도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이봉주 외, 2010). 부모와 가족성원들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 가족성원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보살핌의 결핍 등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건강에 있어서도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강할수록 자녀가 행동상의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정나영, 이정숙, 1999; Shileds & Clark, 1995). 정서적 유대가 긴밀한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격려, 인정을 받으며 자라나는 아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동시에 수용감, 안정감, 자신감 및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족 내에서 부정적인 가족갈등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강압적인 훈육을 경험하는 것은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애경, 2001; Davies & Cummings, 1994).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때,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련하고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정 내 조부모 동거여부는 아동의 행동건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기 특히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 조부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육과 보호 기능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Tan, Buchanan, Flouri, Attar-Schwartz & Griggs (2010)는 조부모가 ‘제2의 부모’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보호자(protector)’이자,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후원자(benefactor)’, 부모에게 말 못할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confidant)’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부모를 통해 부모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의 빈틈이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와 가깝게 거주하며, 감정적 연계가 강할수록, 그리고 손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ueller & Elder, 2003). 본 연구에서도 조부모는 부모를 대신 또는 보완하여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아기 아동의 행동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조부모가 아동보육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아동보육에 있어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대간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신적 건강 측면에 있어 양

친부모 여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양친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정신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나 모의 결손이 가족전체와 아동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전통적인 가족상실론적 관점(parental absence perspective)을 뒷받침해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족의 아동은 우울, 불안, 사회적 철회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Hoyt, Cowen, Pedro-Carroll & Alpen-Gills, 1990), 이는 한부모의 경우 혼자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부재로 인해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아동의 정신건강에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오승환, 2001), 특히 애착형성을 주요 발달과업으로 하며, 항상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기일수록 부모의 부재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아동보육 체제 강화 및 아동양육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와 같은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부와 부모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비해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의 영향력이 실제로 더욱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는 반면, 빈곤가구 및 저학력부모 가구의 수가 연구대상 내에 적게 표집되었기 때

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6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연구대상을 다루고 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향후 보다 많은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가정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숙 (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윤희, 강민주 (2010).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 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아동학지*, 31(3), 199-214.
- 박순영, 이종인, 김희경 (2007). 가정환경 특성이 만3세 유아의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4호, 91-119.
- 오숙경 (2001).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창의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호, 77-107.
- 이영숙, 박화운 (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

- 육연구, 20(3), 211-232.
- 이은영, 윤미선 (2005).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행동. *인문과학연구*, 10, 137-164.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호, 107-141.
- 정나영, 이정숙 (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주현 (2007). 아동 신체학대 발생의 영향 요인: 한부모 가족과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87-216.
- Achenbach, T. M. (1991). *Handbook of Development Psychology*. N. Y.: Plenum.
- Barranti, C. C. R. (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ooks-Gunn, J., & Duncan,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summer/fall*, 7, 55-71.
- Cameron, N., & Demerath, E. W. (2002). Critical periods in human growth and their relationships to diseases of aging. *Yearbook of Physical Anthropology*, 45, 159-184.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s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 70-95.
- Hoyt, L. A.,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n-Gills, L. (1990).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6-32.
- McLoyd, V. C.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The effects of parental job and income loss i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4, 293-302.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D.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193-212.
- Mueller, M., & Elder, G. H. (2003). Family contingencies across the generations: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 holistic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04-417.

- Sameroff, A. J. (1994). Developmental systems and family functioning. In R. D. Parke & S. G. Kellam(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s*. Hillsdale, NJ: Erlbaum.
- Shields, G., & Clark, R. D. (1995). Family correlates of delinquency: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2(2), 93-106.
- Tan, J., Buchanan, A., Flouri, E., Attar-Schwartz, S., & Griggs, J. (2010). Filling the parenting gap? grandparent involvement with U. K.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1(7), 992-1015.

1차 원고접수 : 2010. 10. 08.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2.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oddlers

Pak, Sun yo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e Sung

School of Health & Life Scienc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status of toddler aged children. The data was harvested from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upon parents of five year old children, utilizing the Children Health Questionnaire - PF50. The effects of family socio-economic, structure, general relational factors, behavioral issues,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family relationship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both general and behavioral health status of children. Moreover, the variable of living together with one's grandparents influenced behavioral health status, and family structural factors impacted on the mental health status of children. From these results, it was possible to discern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hich focuses on improving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a toddler's family. These issu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health status of children, fami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hildren Health Questionnaire-PF50.